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경험 지각의 매개효과

박 수 민      안 현 의<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성인들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에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는지 탐구하고, 그 관계를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 수준이 매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심리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 대처전략의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그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와 수동적 성차별경험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8.와 Mplus 7.4를 통해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반적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연구 변인이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경험 지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적 통제소재가 높아지고, 높은 내적 통제소재는 성차별 경험 지각을 더 지각하여 내면화와 분리와 같은 성차별 대처전략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성차별 대처전략,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내적 통제소재, 성차별경험 지각

<sup>†</sup>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성평등지수 값이 70.5점에서 75.2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 문제가 많이 나아진 듯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각 나라의 자원과 기대에 따른 2020년 성격차지수를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37개 중 35위를 차지하며 성격차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배제당하거나, 잘못 대응되거나, 성 고정관념에 속해있다(Foster, 2009). 오랫동안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집단 폭력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을 의미하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해 연구가 더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미묘하고 흔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경멸, 적대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의되며(Sue et al., 2007),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여성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다름(otherness)에 대한 감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Lui & Quezada, 2019). 이때 위기 보상실패 모형은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성공적인 대처는 성장적응 방향으로 이끌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대처전략은 보상실패 적응 방향으로 이끌어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De La Fuente, 1990). 연구 결과 대처전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조절효과를 보이며(Todorova, Falcon, & Price, 2010) 차별로 인한 우울을 악화시켰다(Liao & Wei, 2011).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또한 경험한 이후 효과적인 대처전략

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Sue, 2010).

이와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남성대로 성차별을 경험한다고 느끼며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호소하며 ‘페미니즘’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부당함을 경험하는 사회적 양상은 설문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라는 문항이 4점 만점에 평균 3.22점을 기록하며 한국 사회의 정당함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 젠더 갈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2021)는 51.7%의 남성이 한국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하였고, 74.6%의 여성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며 모든 성별에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당함을 만연하게 경험하는 사회 속에서 젠더 갈등이 첨예해지자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할 때 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나 불쾌감을 드러내고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이때, 정당함에 대한 인식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주는 영향과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대처전략을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차별 인식에 대한 사회적 현상인 젠더 갈등을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고, 성차별에 대한 연구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 갈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적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성차별 대처 전략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차별 상황과 같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한 대처 전략 또한 중요하다.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Moos & Schaefer, 1993), 이때 대처는 내외적인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반응이자 개인이 지닌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응으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7). Tobin, Holroyd, Reynolds 그리고 Wigal(1989)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노력인 관여적 대처와 스트레스원이 야기한 정서와 인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응인 비관여적 대처로 나누었다. 비관여적인 대처의 예로는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시도, 문제를 회피하거나 철회하기, 자기비판이 포함된다(Tobin, 1989).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자극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개인이 지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우며(신혜진, 김창대, 2002) 대처전략 이후에도 개인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비판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이문선, 이동훈, 2014), 회피적인 대처나 아무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아진다(Bernstein & Trimm, 2016). 또한, 비관여적 대처전략이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iao & Wei, 2011; Bernstein & Trimm, 2016).

이러한 대처전략 중 차별 경험에 사용하는 대처전략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Sue et al., 2007) 학자들이 있으며, 차별과 같은 특정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달리 차별 행동에 수반되는 고유한 대처전략이 있다는(Kaiser & Miller, 2001) 연구

도 있다. Wei와 연구자들은(2010) 차별 대처전략을 소수자의 정체성 발달단계에 따라 초기 정체성 발달단계 대처전략으로는 내면화와 분리로, 후기에는 저항과 교육/권리 옹호로 분리하였다. 이때 내면화는 자신에게 귀인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분리는 타인에게 거리를 둠으로써 사회적 혹은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보미, 이승연, 2020). Tobin 등(1989)의 분류법과 같이 보면 초기 정체성 발달단계의 대처방법은 비관여적 대처와 개념이 중첩되며 두 분류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내면화와 분리를 포함하는 비관여적 대처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여성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성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의 기제를 살펴보면 주요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차별에 대한 여성학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은 자신이나 타인이 소속된 세상이 정당하다고 지각하며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인지적인 신념이며(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7), 이는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성된다(Dalbert, 1999). 전자는 자신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정의되며, 후자는 타인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타인은 각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정의된다(Lipkus, 1991). 중단 연구 결과 두 요인이 구분된다고 나타났으며(Johnston, Krings, Maggiori,

Meier, & Fiori,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형태가 더 전반적일수록, 특히 일반적인 믿음의 경우, 신념을 향한 침입에 차별적인 반응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가혹한 반응과 같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전통적인 가치들과 더 연관이 있다(Sutton & Douglas, 200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상황에 일반적인 믿음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믿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정당성 동기 이론(justice motive theory)에 의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대인 간의 계약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통제를 경험하여 세상이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Lerner, 1980). 안정감과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생기기 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대처행동이 달라지는데, Lerner(1980)은 부당함에 반응하는 범주를 부당함을 인정하는 합리적 전략, 심리적 방어형태로 나타나 부당함을 합리화하는 비합리적 전략 그리고 보호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수동적이고 비관여적인 대처전략은 비합리적 전략과 연관이 있는데, 비합리적 전략은 물리적으로 상황을 피하거나, 피해자를 향한 부당함으로부터 철수하는 행동과(Bal & van den Bos, 2010) 피해자의 불행을 정당화하며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왜곡으로(Warner, Van Deursen, & Pope, 2012) 나타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로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에 취약성을 보였다(Dalbert, 2001). 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할 경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있다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회에 적응적이며, 개인

의 대처 자원이 된다(Dalbert, 1998). 하지만 믿음을 합리적으로 지킬 수단이 없으면 개인은 현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할 동기가 낮아지고(Beierlein, Werner, Preiser, & Wermuth, 2011),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전략들을 사용한다. 그 예로는 절대적 정의적 귀인과 부인-철회가 있으며(Ellard, Harvey & Callan, 2016), 연구 결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개인적인 차별 후에 더 적은 대처행동을 보였다(Lipkus & Siegler, 199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상 속 성차별 장면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성인이 어떠한 대처전략을 선택하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인지적 부조화, 피해자 비난, 그리고 부당함을 목격한 타인이 피해자 비난을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복구하는 과정(De Judicibus & McCabe, 2001)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를 향한 비난, 피해자를 향한 도움(Hafer & Be'gue, 2005)에 대해 연구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신념이 성차별 상황의 목격자와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과 대처 행동과의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내적 통제소재

Rotter(196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통제소재는 Rotter의 사회학습이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통제소재는 삶에서 얻는 보상 혹은 결과가 개인의 행동에 의해 통제 가능한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Wang, Bowling, & Eschleman, 2010). 동기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의 이유가 개인 내적에 있는지 혹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며(Deci & Ryan, 1985), 통제소재 또한 내적 통제소재와 외적 통제소재로 나뉜다.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자신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신념이 있지만, 외적 통제소재 성향이 강한 개인은 운명, 타인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소가 통제한다고 믿는다(Spector, 198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와 개인이 지닌 자원의 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전략 종류에 영향을 준다(Folkman, 1984). 그 이유는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 경우 개인은 어떠한 결과나 사건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고,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이 개인의 통제하에 있으며 변화 가능하다고 지각하고, 이를 통해 진취적, 문제 지향적, 문제 중심적 대처 행동을 선택하기(Owusu-Ansah, 2008)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내적 통제소재를 지닌 사람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처 행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본다(Steptoe & Wardle,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내적 통제가 내면화와 분리와 같은 대처전략과 부적인 연관이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통제에 대한 감각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시각과 세상은 구조화되어있고 알맞게 반응하는 곳이라는 시각을 포함하는데(Bandura, 1981), 이러한 기대되는 구조화와 시각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소재는 독립적이지만 높은 상관을 보이며(Muller, Caldwell, & Hunter, 1994), 통제소재가 설명하는 심리적

결과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tton & Douglas, 2005).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성격적인 특성(Khera, Harvey, & Callan, 2014)이나 일찍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질로 보는(Dalbert, 2009) 반면, 통제소재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더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Lefcourt, Miller, Ware, & Sherk, 1981)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소재에 선행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 성차별경험 지각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했을 때 어떤 대처전략을 선택하는지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에(Lazarus, 1993) 개인이 성차별 상황을 지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상 속 성차별로 용어를 지칭하였다(김재희, 이영순, 2001). 이런 미묘한 단서에 대한 지각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차별에 대한 단서와 부당함이 명확할수록 개인은 부정적인 결과를 차별 때문이라고 지각하고(Major, Quinton, & Schmader, 2003), 확실한 차별에 대한 증거가 없고 모호한 단서일수록 개인 내적 차이가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기(Snyder & Ickes, 1985) 때문이다. 개인 내적 차이로는 심리적 변인들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소재를 통해 성차별 지각 수준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차별을 적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Choma, Hafer, Crosby, & Foster, 2012), 이러

한 신념은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지각할 때 영향을 주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Dalbert, 1998). 다음으로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략을 세우며(Skinner & Wellborn, 1994), 개인이 만족하지 않는 직무에 안주할 확률이 적다고 하였다(Spector, 1982). 이를 보았을 때 높은 내적 통제는 성차별과 같은 부당한 상황을 더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성차별에 대한 지각은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주는데, 교류 모형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 과정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7). 이때 성차별에 심한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이 소수자에게 많은 위험 부담을 줄 수 있어(Sue et al., 2007) 관여적인 대처가 더 어려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에서 미묘한 성차별이 사회적 규범과 동일시되며(Nadal, 2013), 성차별 수준이 심할수록 차별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aiser & Miller, 2001). 또한, 지속적인 차별 상황에 노출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체념하게 하며, 그 결과 관여적인 방식의 대처보다는 수동적 대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ianchi, Zea, Poppen, Reisen, & Eccheverry, 2004). 이를 통해 성차별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고 노출된 개인은 비관여적인 대처방법인 내면화와 분리를 더 사용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대상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었는데(Kanter et al., 2017), 본 연구는 일상 속 성차별을 목격 및 경험한 성

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성차별 경험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신념으로 학습되는 성차별적 태도에서 비롯되며, 성별에 상관없이 학습된 개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여성 스스로도 내면화된 성차별적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Dovidio, Kawakami, & Gaertner, 2002) 경험의 당사자뿐만이 아닌 목격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Clark & Spanierman, 2018).

## 연구 문제의 도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 대처전략에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는가?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수동적 차별 대처전략의 관계를 내적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이 매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5일간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이었으며, 연구 안내를 읽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목격한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총 42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원자료에 결측값과 이상치가 없어 424

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214명(50.5%)이고, 남성은 210명(49.5%)을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30.3세(SD=14.2)로, 19세~29세는 83명(19.6%), 30세~39세는 83명(19.6%), 40세~49세는 85명(20%), 50세~59세는 85명(20%), 60세~69세는 88명(20.8%)으로 나타났다. 설문 종료 후, 연구에 참여한 424명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 측정도구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Lucas와 Alexander(2011)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김은하 등(2018)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분되며, 4개의 하위요인은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일반적인 믿음을 측정하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예: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예: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은 7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러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높을수록 개인의 노력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과 개인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 보상을 얻었다는 믿음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하 외(2017)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분배공정성이 .90, 절차공정성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각각 .89, .92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 내적 통제소재

내적 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해 Levenson(1981)이 개발한 Internal, Powerful others, Chance 통제소재(IPC)를 배준성(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재성, 강력한 타인, 우연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 하위요인은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성 요인을 사용하였으며(예: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없고의 여부는 대체로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8문항은 7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러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높은 내적 통제소재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개인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준성(2006)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74가 나왔다.

#### 성차별경험 지각

성차별경험 지각은 김은하(2018)가 만 19세 이상의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남녀 모두 적용 가능하고, 차별 상황의 목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며, 일상속성차별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차별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예: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과 여성의 미모(예: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TV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마이

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5= 매우 자주 경험하였다)로 평정하며, 높은 점수는 해당 성차별 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고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김은하(2018)의 성인 여성 대상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Wei 등(2010)이 개발한 차별 대처전략 척도(Coping with Discrimination Scale)를 김보미와 이승연(2020)이 성차별 경험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차별 대처전략 척도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내면화, 분리, 약물/알코올 사용, 저항, 교육/옹호 중에서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초기 발달단계 대처 전략에 해당하는 내면화 4문항(예:“나는 성차별 이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된다”)과 분리 5문항(예:“나는 성차별을 겪거나 보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을 사용하였다. 내면화 문항 중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역채점 문항(“나는 내가 성차별 사건을 일어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역문항이 총문항 상관에 낮은 수치를 보이고, 낮은 모형 적합도를 보인다는 학자들의 의견(Ye & Wallace, 2014)과 역문항이 인위적인 반응 요인을 생성한다는 의견(Harvey, Billings, & Nilan, 1985)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삭제하였다. 모든 문항은 6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높은 점수는 특정 대처전략을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ei 등(2010)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내면화가 .87, 분리는 .73이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0, .74가 나왔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

####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7.0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수동적 성차별 대처 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토대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확인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추정을 위해 요인 알고리즘 방식을 따라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이후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검증 방식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합도 지수인 Comparative Fit Index(CFI)가 .90 이상이며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이 .08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으로(Hu and Bentler, 1999),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은 .05 이하를 매우 좋은 적합도, .08 이하일 때는 괜찮은 적합도를 지닌 모형으로(Browne & Cudeck, 1993) 판단한다. 이때 유일한 통계적인 검정인  $\chi^2$ 검정은 표본의 크기,

상관계수의 크기, 모수의 개수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영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수영, 2016).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est, Taylor와 Wu (2012)의 제안에 따라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확인하였다. 그 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스트래핑은 표본을 반복추출하여 얻은 경험적인 분포를 통해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하는데, 이때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 결 과

###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내적통제소재, 성차별 경험 지각,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을 측정하였다.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그리고 첨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들의 이상치와 정상성을 확인했다. 모든 변인에서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왜도의 절댓값이 2와 첨도의 절댓값이 7을 넘지 않아 정상성 가정이 지켜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그리고 모든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내적통제소재( $r=.55, p<.01$ )와 강한 크기의 정

적상관을, 성차별 경험 지각( $r=-.119, p<.05$ )과는 작은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차별 대처전략( $r=.171, p<.01$ )과는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차별 대처전략은 성차별 경험 지각( $r=.298, p<.01$ )과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내적통제소재는 성차별 경험 지각이나 성차별 대처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라 잠재변인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주요 변인과 하위요인에서 성별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성차별 경험 지각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하 연구는 남녀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 타당도와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개별 문항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정 모수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 변인을 측정하는 지표변인에 대한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문항의 합 혹은 평균값과 같은 단일 관측치는 잠재변인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지만(서영석 2010), 문항묶음은 최대우도법의 기본 가정인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든 개별 문항을 사용할 때보다 측정오차의분산이 감소하여 문항의 신뢰도가 증가한다(Bandalos,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 기반으로 나누어진 하위요인들을 요인

표 1. 번인들의 상관 관계 (N=424)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3-1	3-2	3-3	3-4	4	4-1	4-2	4-3	
1	1																			
1-1	.75**	1																		
1-2	.73**	.80**	1																	
1-3	.76**	.84**	.82**	1																
1-4	.69**	.72**	.72**	.78**	1															
2	.27**	.32**	.31**	.29**	.29**	1														
2-1	.27**	.32**	.29**	.31**	.34**	.56**	1													
2-2	.30**	.33**	.28**	.33**	.29**	.50**	.34**	1												
2-3	.19**	.23**	.28**	.23**	.25**	.63**	.36**	.26**	1											
2-4	.35**	.42**	.43**	.40**	.42**	.62**	.46**	.35**	.56**	1										
3	-.10*	-.07	-.05	-.09	-.13**	.08	.07	.01	.10*	.045	1									
3-1	-.06	-.03	-.02	-.05	-.09	.04	.04	-.01	.02	.03	.86**	1								
3-2	-.08	-.05	-.04	-.06	-.08	.08	.10*	0.06	.09	.04	.86**	.70**	1							
3-3	-.13**	-.13**	-.11*	-.15**	-.17**	.06	.00	-.04	.14**	.02	.81**	.56**	.56**	1						
3-4	-.08	-.08	-.06	-.09	-.13**	.03	.04	-.06	.06	.02	.81**	.57**	.59**	.71**	1					
4	-.01	-.01	-.03	-.04	-.00	.07	.05	-.02	.01	.05	.03	-.01	.06	.02	.03	1				
4-1	.05	.06	.04	.07	.05	-.08	-.02	.12**	-.16**	-.05	.19**	.21**	.22**	.08	.15**	.05	1			
4-2	.04	.11*	.09	.13**	.02	-.06	.03	.10*	-.14**	-.01	.18**	.19**	.19**	.07	.15**	-.02	.59**	1		
4-3	.10*	.11*	.10*	.12*	.07	.05	.11*	.19**	-.09	0.02	.23**	.20**	.26**	.09	.15**	-.00	.42**	.45**	1	
4-4	.16**	.19**	.16**	.15**	.13**	.14**	.11*	.26**	0.07	.13**	.15**	.12*	.21**	.03	.13**	-.00	.31**	.38**	.55**	1

\*\* $p < .01$ , \* $p < .05$

주. 1: 정당한세상에대한믿음, 1-1:분배 공정성1, 1-2:분배 공정성2, 1-3:질차공정성1, 1-4:질차공정성2, 2:내적통제소재, 2-1:내적통제소재1, 2-2:내적통제소재2, 2-3:내적통제소재3, 2-4:내적통제소재4, 3:성차별경험지각, 3-1:성차별 부정과성역할고정관념1, 3-2:성차별 부정과성역할고정관념2, 3-3: 여성의미모1, 3-4:여성의미모2, 4:성차별대처전략, 4-1: 내면화1, 4-2: 내면화2, 4-3: 분리1, 4-4: 분리2

알고리즘을 통해 문항묶음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높은 요인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낮은 요인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묶어 균등한 요인부하량을 배분하였다. 우선 내적 통제소재는 단일 요인이기에 요인 알고리즘을 이용해 네 가지 지표변인을 생성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두 하위요인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각 두 개씩 문항묶음 하였으며, 성차별 경험 지각과 성차별 대처전략 또한 두 하위요인을 각 두 개씩 문항묶음 하였다.

이후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 단계 검증방식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잠재변인을 측정변인들로 타당하게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는 335.869(df=98,  $p<.001$ )로 유의하였지만, 근사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6 (90% 신뢰구간 0.067~0.085), SRMR은 .060, CFI는 .930, TLI는 .915로 모든 기준을 만족하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자료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Kline(2011)에 따르면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70을 넘어야 수렴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고, 변별타당도의 경우 잠재

변인 간 상관이 .90 이하일 때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1$ ) .70 이상이었고,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90 이하로 확인되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구인 타당도를 확보한 후 설정한 구조모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값은 335.869(df=98,  $p<.001$ )로 유의했지만, 근사 적합도 지수가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고 (RMSEA=.076[90% CI=0.067~0.085], SRMR=.060, CFI=.930, TLI=.915),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며 자료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2과 같이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내적 통제소재( $\beta=.55$ ,  $p<.001$ )와 성차별 대처전략( $\beta=.31$ ,  $p<.001$ )을

표 2. 구조모형의 경로 계수

경로		B	$\beta$	S.E	p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내적 통제소재	.029	.555	.042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성차별 경험 지각	-.259	-.230	.068	<.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성차별 대처전략	.202	.305	.070	<.001
내적 통제소재	→ 성차별 경험 지각	.432	.200	.073	.007
내적 통제소재	→ 성차별 대처전략	-.212	-.166	.078	.034
성차별 경험 지각	→ 성차별 대처전략	.204	.347	.056	<.001

주 2.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경로 계수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높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높은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대처전략을 더 자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성차별 경험 지각( $\beta = -.23, p < .001$ )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성차별 경험 지각을 더 적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내적통제소재는 성차별 경험 지각( $\beta = .20, p < .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여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성차별 경험 지각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 대처전략( $\beta = -.17, p < .05$ )은 부적으로 예측하여 높은 내적 통제소재는 성차별 대처전략을 덜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경험 지각은 성차별 대처전략( $\beta = .35, p < .001$ )을 정적으로 예측하여, 성차별 경험 지각을 더 인지할수록 성차별 대처전략을 더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

음이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을 거쳐 성차별 대처전략에 이르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Efron(1992)에 의해 개발된 비모수적 재표집 기법인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스트래핑은 표본을 반복추출하여 얻은 경험적인 분포를 통해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하는데, 이때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부스트래핑을 위해 원자료(N=424)에서 무선 표집을 통해 생성된 10,000개의 표본을 만든 후 간접효과를 추정하였고,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정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있으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서 성차별 대처전략으로 이르는 총 효과( $\beta = .171, p < .01$ )와 총 간접효과( $\beta = -.134, p < .001$ )가 통계적으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beta$	S.E	95% C.I	
총효과	.113	.171	.044	.044	.296
직접효과	.202	.305	.039	.144	.459
총 간접효과	-.088	-.134	.058	-.246	-.019
간접효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성차별 경험 지각 → 성차별 대처전략	-.053	-.080	.022	-.155	-.02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내적통제소재 → 성차별 대처전략	-.061	-.092	.035	-.185	.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내적통제소재 → 성차별 경험 지각 → 성차별 대처전략	.025	.038	.013	.006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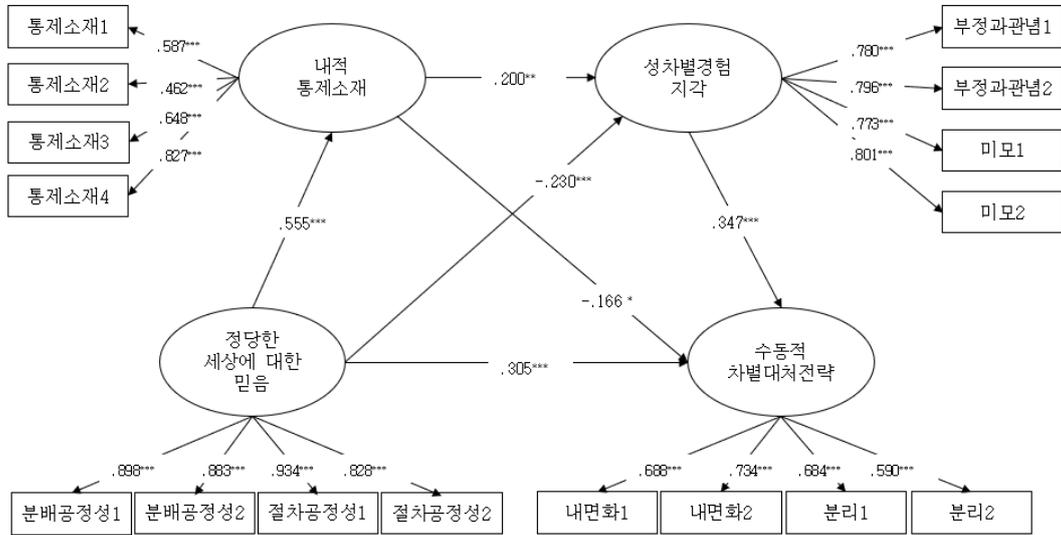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의 검정 결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별 매개효과를 보았을 때,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 경험 지각 수준을 통해 성차별 대처전략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80$ ,  $CI = -.155 \sim -.023$ ).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성차별 경험을 적게 지각하고, 수동적 차별대처전략을 더 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내적 통제소재를 통하여 성차별 대처전략에 이르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92$ ,  $CI = -.185 \sim -.017$ ). 마지막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성차별 대처전략에 이르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 = .038$ ,  $CI = .006 \sim .083$ ). 이를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을수록 내적 통제소재가 증가하여 성차별 경험 지각을 더 인지하고, 수동

적 성차별 대처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수동적 성차별 대처전략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소재와 성차별 자각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 대처전략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별과 관련 없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더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개인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할 동기가 낮아지고 비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한다.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사회에 적응적이라는 시각과 부적응적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데(Kong, Cui, Yang & Cao, 2021), 본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믿음은 부적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성차별 대상자만이 아닌 목격자에게도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선택하게 돕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성차별 경험 대상자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장기적인 목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목표를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이루게 해준다는(Hafer & Rubel, 2015)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보면, 한국에서 일상 속 성차별 장면에서 선택되는 친사회적인 방법은 내면화와 분리와 같은 수동적인 대처전략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둘째,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 대처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소재와 성차별 경험 지각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자신이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더 믿고, 이러한 믿음이 강할수록 성차별 경험을 더 지각하고, 더 지각할수록 수동적이고 비관여적인 대처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차별 대처전략만의 관계를 보았을 때는 부적의 관계에 있지만, 내적 통제가 매개요인으로 들어가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내적 통제소재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차별 경험을 더 지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

람들은 성차별 경험을 적게 지각하여 사회의 부당함을 못 느껴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성차별 경험을 더 지각하지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어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선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믿음을 합리적으로 지킬 수단이 없으면 개인이 상황을 바꾸고자하는 동기가 낮아지고(Beierlein et al., 2011),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전략을 선택한다(Ellard et al., 2016)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다. 다음으로 내적 통제소재는 선행연구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수동적 차별대처전략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지만, 매개모형에서는 수동적 차별대처전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내적 통제소재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적극적인 대처법을 모색한다는 선행연구(Owusu-Ansah, 2008)는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다. 하지만 높은 내적 통제소재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을 더 지각하면 다른 대처 양상을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성차별 상황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해도 위협을 덜 느껴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Beierlein et al., 2011)는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경험을 더 지각하는 것은 차별 상황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노출은 무력감을 경험하고 체념하게 하며, 그 결과 관여적인 방식의 대처보다는 수동적 대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Bianch et al, 2004),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직접적이고 관여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당사자에게 높은 위협일 수 있으며, 의견이 수용 받기 힘든 환경일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상

이 정당하다는 신념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높이고, 이로써 차별 상황을 더 지각하지만, 더 지각할수록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 상황에서 대처행동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남미(2021)가 정리한 한국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 논문 및 학위논문 대상으로 총 5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성 관련한 연구는 5편, 성 고정관념은 4편이었는데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대처전략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 성인 남녀가 성차별 지각 수준에 차이가 없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 대처전략의 관계가 동일한 것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이런 현실을 지각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차별 관련 남녀 간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 사회 양상과는 달리, 성차별 지각 수준에서는 남녀 모두 동등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남녀 모두 동등하고 일상 속 성차별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성차별을 경험하는 대상자 외에 목격자도 수동적으로 대처함을 의미하며, 일상 속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지를 얻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일상 속 성차별에 적응적이고 관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 문화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내적 통제소재를 연구

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한국과 같이 아시아 문화권은 집단주의 문화가 있기에 이러한 변인의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경우 문화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어 조직 사회와 문화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며(Cameron & Quinn, 1999), 내적 통제소재의 경우 문화권에 따라 감정 표현성의 관계가 달랐는데,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의 경우 감정 표현성을 높일 때 내적 통제소재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an, Thompson, & Yu,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내적 통제소재를 한국 문화에서 연구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연령대를 젊은 층과 노년층으로 나누어 독립 t집단 차이를 실시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준의 연구대상을 모집하고 연령대에 따른 비교와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상 속 성차별경험 척도는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은하(2018)가 타당화하고 개발한 성차별경험 지각 척도는 여성이 내면화한 경험은 배제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험만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남녀를 모두 포함한 일상 속 성차별 목격자와 성차별의 대상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기에 척도에 대한 타당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자와 목격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해볼 수 있겠다. 셋째, 성차별 대처행동 척도의 내면화 문항에서 역채점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항 중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역채점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역채점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척도의 모든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해볼 수 있겠다. 넷째, 대처전략과 정체성 발달단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Wei 등(2015)을 참고하여 내면화와 분리를 비판역적인 대처전략과 연관 지어 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대처전략과 정체성 발달단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연구 대상자들의 정체성 발달단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게 응답했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는 문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변인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김보미, 이승연 (2020). 20-30 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류: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5(3), 225-246.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학지사.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의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효과.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5), 39-53.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김재희, 이영순 (2001). 2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감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3(2), 291-312.

배준성 (2006). IPC 통제소재 및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 자기 개념과 용서의 관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 (Coping Strategy Indicator) 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19-935.

양난미, 김미경, 이아라, 장지선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연구동향. *인문사회* 21, 12(2), 1823-1838.

여성가족부 (2021).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이문선, 이동훈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

- 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73-9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l, M., & van den Bos, K. (2010). The role of perpetrator similarity in reactions toward innocent victim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6), 957-969.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ndura, A. (1981). Self-referent thought: A developmental analysis of self-efficacy.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200(1), 239.
- Beierlein, C., Werner, C. S., Preiser, S., & Wermuth, S. (2011). Are just-world beliefs compatible with justifying inequality? Collective political efficacy as a moderator. *Social Justice Research*, 24(3), 278-296.
- Bernstein, C., & Trimm, L. (2016). The impact of workplace bullying on individual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coping. *SA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4(1), 1-12.
- Bianchi, F. T., Zea, M. C., Poppen, P. J., Reisen, C. A., & Echeverry, J. J. (2004). Coping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sociocultural factors on health behaviour among HIV-positive Latino gay men. *Psychology & Health*, 19(1), 89-101.
- Browne, M.W.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3), 230-258.
- Cameron, K. S., & Quinn, R. E. (1999).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New York, NY: Addison Wesley.
- Chan, R. K. L., Thompson, N. S., & Yu, C. K. C. (2019). Help-seeking attitudes,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expressivity in Hong Kong and Western people. *Asia Pacific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0(2), 95-110.
- Choma, B., Hafer, C., Crosby, F., & Foster, M. (2012). Perceptions of personal sex discrimination: The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ituational ambigu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5), 568-585.
- Clark D. A., & Spanierman L. B. (2018). "I didn't know that was racist": Costs of racial microaggressions to White people. In Torino G. C., Rivera D. P., Capodilupo C. M., Nadal K. L. & Sue D. W. (Eds.), *Microaggression theory: Influence and implications* (pp. 138-156). Wiley.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albert, C. (1998). Belief in a just world, well-being, and coping with an unjust fate. In L. Montada & M. J. Lerner (Eds.), *Responses to victimizations and belief in a just world* (pp. 87-105). Plenum Press.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Dalbert, C. (2002). Beliefs in a just world as a buffer against anger. *Social Justice Research*, 15(2), 123-145.
- Dalbert, C. (2009). Belief in a just world. In M. R. Leary & R. H. Hoyle (eds.), *Handbook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pp. 288-297). The Guilford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 la Fuente, R. (1990).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he 1985 earthquakes in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19(2), 21-29.
- De Judicibus, M., & McCabe, M. P. (2001). Blaming the target of sexual harassment: Impact of gender role, sexist attitudes, and work role. *Sex roles*, 44(7), 401-417.
- Dovidio, J. F., Kawakami, K., & Gaertner, S. L. (2002). Implicit and explicit prejudice and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62-68.
- Efron, B. (1992). Bootstrap methods: another look at the jackknife. In Kotz, S., Johnson, N.L. (eds) *In Breakthroughs in statistics* (pp. 569-593). New York, NY: Springer.
- Ellard, J. H., Harvey, A., & Callan, M. J. (2016). The justice motive: History, theory, and research. In C. Sabbagh, & M. Schmitt (Eds.), *Handbook of Social Justice Theory and Research* (pp. 127-143). Springer New York.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
- Foster, M. D. (200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over time: Implications for co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2), 172-182.
- Hafer, C. L., & Be'gue, L. (2005). Experimental research on just-world theory: Problems, developments, and future challenges. *Psychological Bulletin*, 131, 128-167
- Hafer CL, Rubel AN (2015) Chapter two: The why and how of defending belief in a just worl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1, 41-96.
- Harvey, R. J., Billings, R. S., & Nilan, K. J. (198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Good news and bad new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3), 461-46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hnston, C. S., Krings, F., Maggiori, C., Meier, L., & Fiori, M. (2016). Believing in a personal just world helps maintain well-being at work by coloring organizational justice perception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5(6), 945-959.
- Kanter, J. W., Williams, M. T., Kuczynski, A.

- M., Manbeck, K. E., Debreux, M., & Rosen, D. C. (2017). A preliminary re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aggressions against Black people and racism among White college students. *Race and Social Problems, 9*(4), 291-299.
- Kaiser, C. R., & Miller, C. T. (2001).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54-263.
- Khera, M. L. K., Harvey, A. J., & Callan, M. J. (2014). Beliefs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s refugees among refugee workers. *Social Justice Research, 27*(4), 432-443.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ng, Y., Cui, L., Yang, Y., & Cao, M. (2021). A three-level meta-analysi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antisociality: Differences between sample types and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Article 111065.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1), 1-22.
- Lazarus, R. S., & Folkman, S. (1987). Transactional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s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3), 141-169.
- Lefcourt, H. M., Miller, R. S., Ware, E. E., & Sherk, D. (1981). Locus of control as a modifie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ors and moo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57-369.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I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p. 9-30). Springer, Boston, MA.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1*, 15-63.
- Liao, K. Y. H., & Wei, M. (2011). Intolerance of uncertainty, depression, and anxiety: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roles of rumin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12), 1220-1239.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171-1178.
- Lipkus, I. M., & Siegler, I. C. (1993).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27*, 465-474.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 - 82.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Lui, P. P., & Quezada, L. (2019). Associations between microaggression and adjustment outcomes: A meta-analytic and nar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5*(1), 45-78
- Major, B., Quinton, W. J., & Schmader, T.

- (2003).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mpa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ituational ambigu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3), 220-231.
- Moos, R.H., & Schaefer, J.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Goldberger, L. and Breznitz, S.,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nd Edition, *The Free Press* (pp. 234-257), New York,
- Muller, R. T., Caldwell, R. A., & Hunter, J. E. (1994). Factors predicting the blaming of victims of physical child abuse or rape.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6*(2), 259-279.
- Nadal, K. L. (2013).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wusu-Ansah, F. E. (2008). Control perceptions and control appraisal: relation to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Ghana medical journal, 42*(2).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kinner, E. A., & Wellborn, J. G. (1994). Coping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otivational perspective.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12*, 91-133.
- Snyder, M., & Ickes, W. (1985).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3), 883-947.
- Spector, P. E. (1982). Behavior in organizations as a function of employee's locus of control. *Psychological bulletin, 91*(3), 482.
- Spector, P. E. (1988). Development of the work locus of control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1*(4), 335-340.
- Stephens, A., & Wardle, J. (2001). Locus of control and health behaviour revisited: a multivariat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18 countri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4), 659-672.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hn Wiley & Sons.
- Sutton, R. M., & Douglas, K. M. (2005). Justice for all, or just for me? Mor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637-645.
- Tobin, D. L., Holroyd, K. A., Reynolds, R. V., & Wigal, J. K. (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4), 343-361.
- Todorova, I. L., Falcon, L. M., Lincoln, A. K., &

- Price, L. L. (2010). Perceived discrimin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alth.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2(6), 843-861.
- Wang, Q., Bowling, N. A., & Eschleman, K. J. (2010).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work and general locus of contro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4), 761.
- Warner, R. H., VanDeursen, M. J., & Pope, A. R. (2012). Temporal distance as a determinant of just world strate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3), 276-284.
- Wei, M., Alvarez, A. N., Ku, T. Y., Russell, D. W., & Bonett, D. G.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ping with Discrimination Scal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328.
- West, S. G., Taylor, A. B., & Wu, W. (2012). Model fit and model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 209-231.
- World Economic Forum (2019).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 Ye, F., & Wallace, T. L. (2014).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scale: Method effects associated with negatively worded item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2(3), 202-215.
- 1차원고접수 : 2024. 07. 28.  
심사통과접수 : 2024. 09. 16.  
최종원고접수 : 2024. 09. 30.

##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Coping strategy

Sumin Park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belief in a just world have a direct effect on passive coping strategies for gender discrimination. Plus, it investigates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levels of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The study employed an online survey and structural model and mediating effects were tested by SPSS 28 and Mplus 7.4. The findings revealed that 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has a direct positive impact on passive coping strategies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mediates following relationship sequentially. The result showed higher levels of belief in a just world were associated with hig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which in turn led to greater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a greater tendency to choose coping strategies such as internalization and separation.

*Key words* : Coping strategy, Belief in a just world, Locus of control,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